

인도네시아 반동의 스그동역자님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기도편지 60 번째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 19 로 인해 어린이 사망자가 1200 명으로 세계 최고! 이런 뉴스가 오늘 인도네시아 정보 매체에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 출지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가정이 5 천 가정 이상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최근 들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루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5 만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가진 환자들이 두 명 중에 한 명일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정말 가까이 그 놈이 웅크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곳곳에 사람들의 왕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기본 인권 유지 때문일 것입니다. 한 시민이 그런 기본 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사회활동제한 지침을 연장한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행정법원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님들의 기도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19 는 한인 선생님들도 예외없이 공략했습니다. 자주 만나곤 했던 분들이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다는 말을 들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만들 수도, 사러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분들에게 삼계탕이나 녹두죽 같은 음식을 만들어 배달을 해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아내가 매주 목요일마다 참석하고 있는 사모 중보기도모임 7 가정 중에 2 가정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순번을 정해 그분들에게 음식과 약을 배달해 주면서 기도와 사랑이 함께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그 중 한 분에게 좀 어떡느냐고 물으면서 오늘 아침에도 선생님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더니, 답이 오기를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하면서 감사를 표현해 오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코로나 시대에는 아프지도 죽지도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와 함께 성경 읽고 나누는 사역의 신실한 현자인 동역자 부디(Budi)가 지난해 말부터 대장암이 발병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수술비와 입원비는 건강보험을 통해 처리를 했지만, 수술 이후 자가 치료 비용은 자가 부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디 집사는 공직에서 은퇴를 한 뒤 수입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인은 수년전부터 갑자기 뇌가 작아지면서 언어 기능이 마비되어 마치 어린 아이같이 소리만 지르는 상태에서 그런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 스그는 주님에게 하는 것인 줄 모른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면서 선교 동역자님들에게 긴급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선뜻 귀한 헌금을 해주신 몇몇 동역자님들의 사랑으로 Budi 집사가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비를 받은 분이 감사의 말과 함께 성경 구절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 25:40). 이 메시지를 아내에게 읽어주면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하고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다리 역할만 한 것 뿐인데 그런 고백을 받으니 제가 오히려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에 ...



또 한 사람 저희와 함께 하는 띠카(가운데)라는 이름을 가진 순다 종족 젊은 주부가 있습니다. 순다 종족은 대부분 무슬림입니다. 띠카도 나이 30 이 넘도록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 꿈에서 교회 건물이 있는 아주 평화로운 골목과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난 뒤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개종했다는 소식도, 기독교인 형제와 결혼을 했다는 사실도, 다섯 살된 딸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자신의 부모에게는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너무나 엄격한 무슬림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띠카의 부모가 죽기 전에 띠카를 통해 복음을 듣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띠카가 자기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1.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역 대상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사랑을 통하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2. 신실한 형제 부디가 대장암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도록, 띠카가 부모와 복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부모자식 간의 관계가 건강해지도록.
3. 코로나 19 로 인해 꼭 필요한 구제사역비와 주택임대비가 채워질 수 있도록.
4. 부모와 떨어져서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두 아들 성은이와 성진이가 건강하고 화평하도록. 졸업 후 진로에 대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2021 년 8 월 중순,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박상준 이숙영 (성은, 성진) 7기사 올림

- 연락처: +62-813-9488-8002, 070-8246-3990 카톡 ID: kalebpark / parksangjun222@gmail.com
- 후원은행 및 계좌 번호: 하나은행 990-090819-187 (문의 02-443-0883, 한국지피선교회 재경간사)